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 웃어야 웃을 밑이 생긴다

## 교황, 하와이 산불 희생자 애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산불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미국 하와이에 애도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교황청 관영 매체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교황은 11일 주미 교황대사 크리스토프 피에르 추기경에게 전보를 보내 하와이 산불 사태에 깊은 슬픔을 표하며 기도와 연대를 약속했다.

지난 8일 새벽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시작된 산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망자 수는 15일 현재 101명으로 집계됐다. 하와이 당국은 사망자가 최소 2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산불은 허리케인 '도라'의 강풍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관광지과 마을 등이 삽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교황은 "이 비극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실종된 사람들에게 연대를 표한다." 고 말했다. 이어 "사망자, 부상자, 이재민뿐만 아니라 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구조대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며 "영적 친밀감 안에서 전능하신 하느님의 축복이 모든 이들에게 힘과 평화를 주시길 청한다." 고 덧붙였다.

## 미자립교회 후원골프대회 OC장로협의회

오렌지카운티(OC)장로협의회(회장 김용진, 이하 장로협)가 '미 자립 교회돕기 기금 모금을 위한 골프 토너먼트'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오는 28일(월) 부에나파크에 있는 로스코요테스 골프장(8888 Los Coyotes Drive, Buena Park, CA 90621)에서 열린다.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전액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김용진 회장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 우리 협의회는 현재보다 더 많은 교회와 앞으로 홀리스 사역 목사님과 남미 선교를 위해서 후원할 예정이다."라며 "뜻을 같이하는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문의: (714) 612-2021



그냥 빙그레 미소 지을 뿐이다. 나는 고정 되어 있지 않고 끊임 없이 순간 순간 변하고 있다. 이 생각 했다가 돌아서면 저 생각하고, 생각에 따라 행동도 바뀌게 된다. 이렇게 나 자체가 공하여 없으니 어떤 것도 불을 데가 없고 불을 것 또한 없다. 업도 고정된 것이 아니며 한 생각에 업을 지을 수도 있고 녹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과거의 업을 녹이면서 새로운 업을 짓지 않게 되니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웃을 줄 알아야 한다. 과거에 내가 지어서 온 것이니까 내가 풀어야 하고, 내가 지었으면 풀수 있는 능력도 내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어떻게 푸는지 알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능력이 내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웃지 못할 것이 없다.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그것은 과거에 지은 업식을 지워버리고 나의 차원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니 고

(苦)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고 지극하게 주인공에게 맡겨 놓아라. 모든 문제는 바로 주인공이란 한 곳에서 나오며, 나온 그 곳에도 도로 놓을 때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한다.

웃으려면 내 마음이 부자라야 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삶에 대한 자신감은 삶의 도리를 아는 데서 생기고, 마음의 도리를 알아 자기를 죽이는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웃음도 나온다. 한마음의 도리를 알면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일이 없다. 특별히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기뻐할 일도 없다. 모두가 한마음 도리에 따라 돌아가기 때문이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닥치든 그냥 빙그레 미소 지을 뿐이다.

주인공이 나를 이 세상에 내어 놓았고, 내가 육신의 웃을 벗고 돌아갈 곳도 주인공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나의 근본인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것이다. 돌아가는 진리를 모르면 싸울 일이 많고 원망할 일도 많지만 알고 보면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다.

이 세상 만물이 다 나의 스승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가르치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주인공의 다름이다. 그러니 한 마음의 도리를 알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고(苦)를 고(苦)로 여기지 않고 웃어 넘길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미소 지을 수 있어야 내일 웃을 일이 생기게 된다. 어제 나에게 날아온 주먹을 안으로 삼켰어야 오늘 편안하게 살게 된다. 남에게 욕을 하면 욕 먹은 일이 생기듯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이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마라. 오직 마음을 도리에 맞게 쓰다 보면 좋은 일은 저절로 오게 된다.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화낼 것 다 화 내고서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면 안 된다. 내가 지어 놓은 공덕이 없으면 부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이 영원히 잘 사는 길이다.

-고월 스님-

사진=shutterstock

#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